

국어 구문 오용의 유형(1)

李 廷 玟
(서울대 교수, 언어학)

잘못 쓰이고 있는 국어 구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主述관계가 잘못된 구문의 유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主述관계

어떤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주어와 그에 대해 서술하는 술어가 갖추어져야 참·거짓을 가리는 단위인 명제가 성립된다. 물론 표면에 나타나는 문장에서는 주어 등의 요소가 탈락될 수 있으나, 탈락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복합문 안에서의 주어와 동사간의 배열관계상 끝의 동사를 빠뜨리는 잘못이 일어나기도 하고, 主述관계가 불확실하여 해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1.1. 주어 탈락

발화상황의 맥락에 의존하여 주어가 탈락되는 경우가 국어에서는 지극히 흔하고 영어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끔 있다.

(1) Hope you find this paper suitable for publication in your journal(이 논문이 貴誌에 실을 만한 것으로 판정되길 바랍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이인 I 라는 주어가 書信의 맥락에서 쉽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탈락되었다. 국어의 말이나 글에서 탈락되는 일반적인 ‘우리’

등의 주어도 문맥에서 선행사가 찾아지지 않으므로 비언어적 맥락에서 회복되는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글에서는 탈락된 주어의 해석에 발화맥락을 원용하기가 말에서보다 힘들기 때문에 주어를 탈락시키면 해석이 힘들어지거나 문장이 대단히 어색한 경우가 생긴다. 예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자.

(2) 「샌디에이고」에서 관광업을 하는 安龍萬씨(50)의 장남인 그는 “교포 청소년들 중에는 경단에 입단하거나 무단가출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있지만 소수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

이 문장에서 ①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의 주어가 탈락되어 있는데, 선행절의 주어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고 ①의 주어의 선행사 역할을 할 명사구가 최소한 문법 구조상으로는 찾아지지 않는다. 의미상 짐작으로 선행하는 ‘교포 청소년들’을 지목해야 하고 그것도 정확히 맞지 않아 그중의 ‘교포’를 꼬집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교포 청소년들은 더러 경단에…’로 앞에 주제를 내놓고 ‘소수민족 가운데’를 ‘소수민족 청소년들 가운데’로 바꿔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정확하다. 다음 예를 보자.

(3) 금년에도 각 대학의 커틀라인이 자연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의학이 최고 매력있는 학문이란 것과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우리 몸에 관한 것처럼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고 한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입증해주고 있다. (신문—신입생에 대한 충고)

이 문장에서 앞절의 주어는 ‘각대학의 커틀라인이’인가 하고 읽다 보면 의미상 뒷절에 나오는 ‘의학이’로 의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놓고 보아도 앞절에 이미 주어처럼 나와 있는 명사구 때문에 대단히 어색하다. ‘금년에도 의학은 각대학에서 커틀라인이 자연계 가운데서…’로 고쳐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최고 매력있는 학문이라’의 주어는 ‘의학’이지만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입증해주고 있다’의 주어는 ‘의학이 각대학에서 커틀라인이 자연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실’이

므로 이에 유의해서 다시 써야 한다. 한편 ‘입증해주고 있다’의 목적어는 ‘—과’로 접속된 ‘의학이… 매력있는 학문이란 것과 …의 말’이라는 명사구다. 다음 예를 보자.

(4) 인류가 발달함에 따라 여러 과학 문물들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 예로서 가장 대표적이라면 바로 텔레비전이라 하겠다. (고3, 논술문)

위의 문장에서 문법상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없다. 그러므로 조건절인 ‘대표적이라면’ 대신 ‘대표적인 것은’이라 하여 주어노릇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바로 텔레비전을 들 수 있겠다’라 하여 일반적인 사람의 주어를 탈락시킨 문장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어가 없어 어색한 예를 더 들어보자.

(5) 범무성이 편찬한 간행물이 시판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관계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신문)

‘관계자들은’ 다음에 ‘이 책이’라고 주어를 넣어주면 훨씬더 이를 빼어 허전하고 어색하다. 앞절의 주어절의 주어인 ‘간행물’은 구조상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의 탈락된 주어의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전자가 후자를 통어 또는 성분-통어(c-command)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앞에 한번 나왔으면 무조건 뒤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先行이 큰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또는 따로이 통사, 의미, 화용론상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이 앞의 내용을 받되 명시적인 주어는 생략된 채 술어가 나타나는 예가 있다.

(6) 그러나 이들 부부가 실질적인 동거생활에 들어간 것이 '80년 6월께로 밝혀진만큼 李·張부부는 동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함께 외화를 빼돌린 것인지를, 더구나 '79년 10월부터 공모를 했다면 李씨가 1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張여인과 합세했다는 설명이 된다.

특히 어느 곳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검찰의 최종 발표.

李·張부부의 사기사건이 8일만에 張여인은 李씨의 편에 빠진 하수인에 불과하고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李씨가 꾸민 「李哲熙사건」으로 바뀐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다. (신문)

위의 글의 뜻이 통하면서도 몹시 꼬르륵하게 나가다가 마지막 문장에 가서는 절정을 이루어 해피하게 되었다. ‘함께 의화를 빼돌린 것인지’를 다음 문장과 킴마로 잇고 있는데 이는 獨白투다. ‘빼돌린 것인지도 모른다’와 같이 동사를 넣어 뺏어주든가 ‘빼돌린 것인지?’로 끝내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설명이 된다’라는 술부는 앞에 ‘공모를 했다면’이라는 조건절이 있어 별 무리는 없다. 이때 조건절이 주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맨 끝 문장의 술어 ‘수사과정이다’는 그중의 명사 ‘수사과정’이 ‘李·張…사기 사건이…」李哲熙사건」으로 바뀐’과 ‘그동안의’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장전체가 술부이고 주어는 생략된 구조이다. 생략된 주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앞 문장의 ‘검찰의 최종발표’라 하겠다. 그러나 그 거리가 너무 멀고 술부의 긴 수식구조가 나빠 전체적으로 劣惡한 문장(주어 없는 술부)이 되었다. 다음도 비슷한 술부로만 된 문장이나 수식구조가 분명하다.

(7) 비밀주의와 폐쇄주의가 일하는 당사자들에게 거주장스러운 것이 없어 간편할지 모르지만 그로 연유되는 부작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단적인 표시다. (신문)

술어인 ‘표시다’의 명사 ‘표시’를 수식하는 보문절과 형용사가 선행하되 전체술부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따르된 선행 문장은 ‘…철저한 비밀주의 국가에선 신문에 지도자의 사진 배열만 약간 달라져도 권력구조에 무슨 변화가 있느니, 누가 실각을 했느니,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등 하나의 작은 變數는 또다른 여러 개의 변수를 낳아 基調 자체에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이다. 여기서 수식된 ‘현상’이 그 다음 문장의 주어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뒷문장의 주어로 ‘이러한 현상은’이라고 밝혀줌으로써 앞뒤 문장을 이어주어 응집시킬 수 있다. 다만 ‘표시다’까지의 거리가 좀 먼 흠이 남는다. 끝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뺏어도 좋을 것이다. 다음 예는 뒤의 술어가 앞에 나온 주

어와 거리가 생겨 主述관계가 잊혀져 다소 안 맞게 되었다.

(8) 저작권 문제는 TV 나 오린지처럼 通商會談 자리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문화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문)

‘아니라’ 뒤의 절에서 생략된 주어 노릇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는’이기 때문에 그 줄어는 그냥 ‘이루어져야’ 보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가 되든가 ‘논의해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1.2. 주제화와 主述관계

다음 예와 같이 주제화된 주어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의 관계가 잘 맞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 있다.

(9) 모비에 관한 한 모티브(motif)의 문제가 그의 회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바로 모비의 그 회화적 시각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말하자면 그의 회화적 시각의 定着化의 가장 적합한 방법론의 결과요 그 구체적인 실현으로 보인다. (논문)

위에서 ‘모티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시각의 특성과 관계된다’고 하는 주제화된 주어인 ‘중요성’이 ‘특성’과 관계된다는 主述결합은 잘못된 것이다. ‘모티브의 문제가 그의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으로 주제화된 보문주어로 고쳐야 할 것이다. 관계절을 굳이 유지하려면 ‘그의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티브의 문제는’이라고 하여 원문의 관계절과 그 머리 명사가 구조를 바꿔 ‘모티브의 문제’를 수식하는 관계절로 삼아야 우선 구문이 통한다. 대개 주제화가 일어나 ‘—는’이 붙은 주어는 줄어부분과 밀접히 관계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예 : ‘언어학은 취적이 잘 된다’) 이러한 혼란된 主述관계를 빚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제화 비슷하게 된 구와 그것을 받는 주어 사이의 관계가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맺어지면서 표현에 나타나지 않은 예이다.

(10) 그동안 국어 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중 聲調音素(tone phoneme)에 관해서는, 비록 그것이 中世國語의 傍點의 본질을 구명키 위한 한 보조적

인 입장에서 출발했고 또 대부분 경상도 방언에 국한된 느낌은 있으나 상당히 활발한 편이었다. (논문)

여기서 ‘그것이’는 ‘그 연구가’를 뜻하는 것으로 별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기는 한다. 다음 예를 보자.

(11) 작가의 독창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화된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화법에 맞는 기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논문)

위 문장에서 ‘아니고’ 다음 접속 부분이 주제화된 주어 ‘작가의 독창성은’과 밀접히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어색해졌다. 끝이 ‘기법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등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